

[오피니언]

光日春秋

이 해 인



서울 쪽에 몇군데 특강이 있어 악열흘간 자리를 비웠다가 내가 머무는 부산 광안리 수녀원에 오니 그 새 살구꽃은 지고 복숭아꽃 벚꽃 자두꽃 모과꽃 자목련이 활짝 피어 나를 반기고 있었다.

심한 황사바람이 우리를 놀라게 힘들게 하였지만 때로는 꽃구름을 만들며 피워오르는 봄꽃나무들이 곁에 있어 웃을 수 있었다. 꽃들이 다 지기 전에 밀린 편지를 써 애지 마을 먹고 엊그제는 우선 급한 것부터 몇통 쓰고 해외에 갈 소포도 몇 개 준비해 당장 우체국에 가려다가 약간의 몸살기가 느껴져 일단 미루고 평소보다 일찍 침방으로 올라왔다. 다음날 오전 사무실에 내려가 컴퓨터 옆 서랍장을 여니 내가 봉투에 넣어 둔 우편발송비 일체와 요긴하게 사용하려고 보관해둔 도서상품권들을 그리고 주교님과 스님으로부터 설날 받은 세뱃돈봉투까지 뚱뚱 없어졌다. 내가 15년을 애용하던 소형 울림푸스 카메라까지 들고 가 버린 그 겹은 손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하얀조가비와 솔방울과 고운 편지지로 가득한 자그만 글방에 겁도 없이 들어와

지갑에 있던 동전과 천원짜리만 그대로 두고 간 그는 생계형 도둑일까, 단지 응도이 귀해 실례를 범한 짧은이일까...아니면 평소에도 이 밖에 곤잘 드나들었던 손님들 중의 한 사람일까. 나름대로 온갖 상상

불안과 의심 없는 세상을 꿈꾸며

을 하며 우리 수녀님들에게 보고하니 '사람 안 다친 것만도 다행으로 여기라'고 위로하지만 마음이 내내 착잡하고 우울하다. 요즘 어떤 세상인데 수녀님은 동정심이 많아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경향이 있으니 앞으로도 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충고도 집중적으로 많이 들는다. 평소에 문을 더 열심히 잡고 다닐 걸, 귀중품은 사무실에 두지 말고 침방에 둘 걸하고 자작 해 보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얼마 전에는 어느 지인이 인터넷으로 보내 준 '오십견의 아픔'이란 제목의 글을 읽고 한참 웃은 일도 있는데 하필 지금 왜 그 이야기가 생각 나느니 모르겠다.

온 적이 있었다. 지금도 그 일이 맘에 걸려서 용서를 구하지만 그 때 진 빛을 수녀님께는 깊을 깊이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만의 방법으로 선을 실천하는 것으로 갚겠다면서... 나는 잠시 감동하여 그렇게 하라고 답을 했던 것 같다.

피천득님의 사랑스런 시 '꽃씨와 도둑'에 나오는 맘씨 고운 도둑을 그려 본다. 도둑이 물건을 훔쳐 왔다가 아무것도 탐낼 것 없고 가져갈 것 없을 만큼 청빈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고요히 다짐해 본다. 꽃도둑 책도둑은 쉽게 용서가 되지만 소임장의 서랍을 살살이 뒤져 간 그 도둑은 쉽게 용서가 안 되는 요즘...가뜩이나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생인데 해외의 친지가 보내 준 라벤더향을 코에 발라도 정신이 더 맑고 말랑해지고 잠이 안 와 걱정이다. 부활시기에 입을 흰 옷을 디립침하며 기도한다. 부디 우리나라의 경제가 골고루 좋아져서 보통사람들도 나쁜 생각 안 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기를-밤이나 낮이나 도둑이 들까 불안에 떨지 않고 살아도 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그리고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의 나눔과 공동선을 향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줄이고 투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 본다.

<수녀·시인>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 고



정형대

야생동물과 인류는 공생공존 한다는 말이 있다. 과거 수 천년 전부터 그 누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지켜져 왔던 것이다.

그러나 산업이 발달하면서 사방으로 큰 길을 내고 공장부지 확보 등의 이유로 인해 야생동물의 생활터전이나 그들의 안식처가 사라져가고 있다.

사람들이 생활계에 대한 배려없이 개발에만 치중하는 사이 야생동물의 보금자리와 먹을 것은 크게 줄고 있다.

선진국에선 자연 환경 훼손을 불러오는 개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따

어 인위적인 생활환경에서 지내야 하는 동물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손이 닿았더라도 야생동물이 생태조건을 갖춘 서식지에서 지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비록 인공적인 시설물이 불가피할지라도 동물들이 넓은 자연 속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가 추진하고 '삼 야생동물복원 공원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된다면 더욱 좋은 일이다.

전 세계적으로 전남도는 물론 우리나라가 야생동물의 종 다양성 회복 등 자

기 고



최종환

지난 4월 1일은 우리나라 예비군이 창설돼 군사작전 및 대민지원 임무를 수행한지 39년째 되는 날이었다.

예비군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6·25전쟁을 치르면서까지 존재하지 않아 적 또는 무장공비의 공세와 대남유격에는 상비군을 주력으로 활용하였다.

1968년 1·21사태가 결정적인 동기가 되어 1968년 4월 1일에 예비군이 창설되면서 율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최초로 작전에 참가, 많은 성과를 거두었을 것을 시작으로 각종 재해

유사시 적의 위협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동원태세를 확립하여 항토방위능력을 배양한다는 목표 하에 내실 있게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4일, 예비군의 전력을 정예화하기 위해 현재 1천800원인 교통비를 3천600원으로, 3천500원인 식사비는 4천원으로 인상하는 등 예비군훈련 보상비 현실회화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예비군 무기 현대화와 전투물자 확보 기준에 따라 부대단위 동원부대는 상비사단 수준으로 시·군·구 단위 항토방위대대는 항토사단에 준하는 전투물

예비군이 변하고 있다

복구 지원을 비롯해 수십 회의 대간첩 작전에 투입되어 빛나는 전공을 세우는 등 국가 안보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다하였다.

하지만 사회 일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매우 안타깝다.

현재 예비군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하에 현역군부대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 대비하며, 적이나 무장공비의 침투 또는 무장 소요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격멸과 무장 소요를 진압하고 중요시설 및 병참선을 경비하며 기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원훈련이나 교육훈련은

자를 확보하고, 예비군의 규모와 복무체계도 현재 300여만 명인 예비군 규모를 오는 2020년에는 150여만 명으로 줄이는 한편 예비군 편성 연차도 현재 1년에서 8년차를 2020년에는 1년에서 5년 차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최근의 안보환경과 군사력의 변화주제를 고려해 볼 때 예비군 역할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어 군에서도 예비군 전력의 정예화와 복무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39살의 원숙한 장년으로 성장한 예비군! 예비군이 변화하고 있다. 예비군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복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이들에게 아낌없이 격려와 찬사를 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동원관리팀장>

야생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지혜를

른 환경조사 및 야생동물에 대한 조사도 사전에 충분히 실시한다. 야생동물의 서식처나 생존 환경을 확보해 야생동물로 하여금 그들만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산업이 발달하면서 사방으로 큰 길을 내고 공장부지 확보 등의 이유로 인해 야생동물의 생활터전이나 그들의 안식처가 사라져가고 있다.

사람들이 생활계에 대한 배려없이 개발에만 치중하는 사이 야생동물의 보금자리와 먹을 것은 크게 줄고 있다.

선진국에선 자연 환경 훼손을 불러오는 개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따

어 인위적인 생활환경에서 지내야 하는 동물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손이 닿았더라도 야생동물이 생태조건을 갖춘 서식지에서 지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비록 인공적인 시설물이 불가피할지라도 동물들이 넓은 자연 속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가 추진하고 '삼 야생동물복원 공원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된다면 더욱 좋은 일이다.

<(사)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전남도지회 부지회장>

성장기 아이들이 입는 교복 안감은 넉넉하게 만들어야

학교 다니는 아이가 자라면서 교복이 몸에 맞지 않아 수선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안감의 시접 부분이 0.7cm밖에 없었다.

교복도 짠게 아니어서 새로 맞추기도 어렵고 어떻게든 그걸 늘려서 입혀 볼려고 대기업체 본사에 전화를 해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직원이 "왜 처음부터 큰 옷으로 장만하지 않았느냐"며 오히려 헐떡을 했다.

그 직원은 "원래 교복은 다 그렇게 만든다. 어떻게 해줄 수 없다"면서 시종 이해해지 않는 말만 하며 불설실하게 대했다. 너무나 화가 나고 어처구니 없는 태도에 "그 때

위로 영업할거라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제조사 이름을 보고 교복을 샀는데, 팔고 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나오니 안타깝다.

교복은 성인이 입는 옷이 아니라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입는 옷이다.

업체가 소비자의 특성을 조금이라도 감안했다면 안감 시접 부분을 그렇게 짧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교복제조업체들이 성장기 아이들에게 입히는 옷이라는 점을 감안해 안감을 충분히 확대하는 미흡한 실정이다.

▲권정예·순천시 가곡동

보면 왜 독서인구와 독서열이 아직도 활성화되지 못하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다.

공공도서관에서 법장사서인력이 부족하여 서장수도 부족하여 정보화, 개방화 시대에 필수적인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제공기능을 시의적절하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독서열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서풍토를 조성하고 도서관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정부는 도서관수 증가와 도서예산 확충에 힘써 장서수를 늘리고 전문사서요원 비율도 높이고 각종 정보를 제때에 공급함으로써 시민들이 도서관을 찾도록 만들고 여가를 즐기면서도 독서를 생활화하는 습성을 조성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명연·광주시 서구 유촌동

시

설

대통령·국민 하나된 여수엑스포 유치 열기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세계박람회 기구 사무국(BIE) 실사단을 접견, 2012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전날 국회의장과 경제계 인사들이 총력을 기울인데 이어 국가 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유치위원회가 실사단에게 보고한 내용을 정부 차원에서 보증한다고 밝혔다. 또 세계박람회를 유치하면 역사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빚어온 경상도와 전라도가 협력과 단결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여수에도 내려와 실사단에게 선상 만찬을 베풀며 총력지원 활동을 벌였다.

국민들의 뜻과 유치 열기는 충분히 입증됐다. 실사단을 맞은 여수는 온통 태극기로 뒤덮였고 실사단의 이름을 하나 하나 아로새긴 플래카드가 넘쳐났다. 곳곳에는 2만여명의 인파가 몰려 실사단을 환영했다. 카르멘 실뱅 행장이 "지구상에서 가장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고 감격했을 정도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에 매우 높은 관심을 보여 왔다. 대통령이 세계박람회 준비상황을 수시로 청취하며 정부와 재계를 상대로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것이다.

설계자 우씨는 문화전당 자체로서 충분히 랜드마크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지상물이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파리하면 세계적인 문화공간인 풍피우 센터보다는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이나 미국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과 같은 국제적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광주와 문화전당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서는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설계자 우씨는 문화전당 자체로서 충분히 랜드마크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지상 상징물이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파리하면 세계적인 문화공간인 풍피우 센터보다는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이나 미국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과 같은 국제적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광주와 문화전당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서는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문화전당은 단순히 문화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미래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산업의 전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광부와 설계자는 랜드마크 기능 강화를 바라는 지역론을 충분히 반영하기 바란다.

無等鼓

스트레스는 생체의 평형을 깨트릴 수 있는 모든 외부의 자극을 이르는 말이다. 스트레스는 때로 목표를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화(火)로 연결돼 결국 육체적·정신적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과중한 업무에 권력 암투까지 더해지면서 조선시대 왕들도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조선시대 왕 가운데 스트레스가 끝나 터지는 증상인 등장으로 고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는 기업 생산성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다. 지난 2003년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 손실액이 6천600억원으로 추정됐다.

직장인 스트레스를 회사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한 보고서에서 회사가 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짜증과 불쾌감을 주는 정치인들의 언동부터 자체화되었으면 싶다.

/김재열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光州日報

회장 許宰皓 副社長·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회·국내외신·배달인내) www.kwangju.co.kr